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31차례의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금융지원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써주신
금융권 종사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1. '20년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성과]

작년 2월부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총 67.5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차·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79만*여명의 소상공인들께 18.3조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 2차 프로그램 및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중복지원 포함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도
4만 3천여개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금리·한도 등을 우대한
26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한 것이
금년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2.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당부]

경제회복을 위한 대전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통해
사회·경제활동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는 길이라는 자세로
금융권이 앞장서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작년 12월부터 금융권 방역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지침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도 금감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2.29일 금융위 부위원장 현장점검(DB손해보험 콜센터) 포함 총 14회 실시

최악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금융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고
필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계획]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경기회복 견인과 코로나19 이후 도약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하였습니다.

*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용자 프로그램 신설(3조원, 30만명),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보증수수료 및 지원금리 인하)

은행권에서도 금리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에 동참해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 기존 2~4%대에서 2~3%대로 최고금리 1%p 인하

오는 1월 18일부터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는 실무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정부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중기부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집합제한업종 영위여부 신속 확인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 애로해소를 위해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
개별 기업의 사례를 검토*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20년 중 150여건의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애로사항을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추이를 고려하여
이른 시일 내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및 각 업권별 협회 등이 공동으로 취약업종·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간담회 실시

[2-4. 신용대출 증가세 관리]

한편, 금년들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약 2,179억원 증가(1.8일, 5영업일 기준)하였습니다.

신용대출이 급증하였던 작년 하반기의
월초 동일한 영업일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아직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 증가액(억원, 5영업일 기준)
: (8월) +5,356 (9월) +6,988 (10월) +11,164 (11월) +4,425

다만, 최근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등 자산투자에 대하여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했던 고액 신용대출, 특히,
긴급생활·사업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특별한 관리강화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신용대출 자금의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은행권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등
신용대출 증가세 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과 정책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 영상회의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화 전환이 가속화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2050 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